

로마서 1 장 18 - 32 절 사람이 짓는 갖가지 죄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9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장 말미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적었는데 18 절로 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진노는 일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화를 내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앞서 16-17 절에 적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 18 절 이후부터 사람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진노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죄에 대한 반감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작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작용합니다.
- 19 절부터 21 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교리인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여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알리셨다고 하여 창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때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 것으로 일반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신 계시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를 통한 성육신이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역사상의 한 시점에서 완성되어 성경을 통해 특별히 전해집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서 구원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1 절부터 28 절까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행위 (죄)와 그 죄를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세번 반복됩니다. 23 절, 25 절, 26 절에서 바꾸는 부분이 등장하고, 24 절, 26 절, 28 절이 그대로 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앞서 18 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했는데, 죄를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된 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23 절 -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 24 절 -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 25 절 -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 26 절 -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 26 절 -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 28 절 -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 26-27 절은 흔히 동성애를 비판하는 구절로 인식되는데, 근래에 와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공격하는 구절들입니다. 동성애 그룹은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구절에 불과하고, 그 당시 로마에서 성행했던 특정 동성애를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바울이 생각하는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구절들이 동성애를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동성애 그룹들이 하는 행위와 주장들은 32 절과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 주신 양심을 따라 그들도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무기 삼아서 이런 행위를 두둔하고자 성경 구절을 공격하고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한 성행위를 허용하신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장 27 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 장 24 절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며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합니다. 동성애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